

# 6월은 리스크의 해소 국면

[Economist] 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 류진이 2122-9210 jinlee@hi-ib.com



2023-05-30

## ■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이어 6월 금리인상 사이클 리스크 해소 기대

부채한도 협상의 잠정 타결을 시작으로 6월은 각종 리스크가 해소되는 국면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6월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리스크는 6월 FOMC 회의와 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로 요약된다.

우선, 6월 FOMC 회의에서 결과가 관건이다. 금리동결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다. 6월 25bp 추가 금리인상을 예상하는 확률이 67.2%까지 급등했다. 미국 경기가 기대보다 양호한 가운데 예상보다 높은 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는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동결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끈적한 물가압력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물가압력 둔화세는 가시화되고 있어 미 연준은 진정되고 있는 신용리스크 재확산에 좀더 정책적 우위를 둘 것으로 보인다. SVB 사태발 신용리스크가 완화되고 있지만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시 등 리스크가 재차 불거질 리스크는 잠재해 있다. BTFP 등을 통한 미 은행들의 연준 자금 차입이 지속되고 있고 MMF 로의 자금이동 역시 재차 증가하고 있음은 신용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시그널이다.

따라서 미 연준이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인상을 일단 중단하고 물가 및 신용리스크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6월 금리 동결이 결정된다면 부채한도 협상과 함께 또 다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 중, 저준을 혹은 정책금리 인하 등의 추가 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기대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더딘 경기 정상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 경제 상황은 추가 부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반짝 반등하던 부동산 경기가 재차 악화되고 있음도 추가 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추가 부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양카드는 저준을 혹은 정책금리 인하이다. 부동산 경기 등 내수 경기 회복 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동결이 결정된다면 인민은행으로서도 저준을 및 금리인하 결정에 부담을 덜 것이다.

미-중 갈등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단기적으로 수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국 정부도 내수 경기 회복에 올인(All-in)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요약하면 부채한도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금융시장내 여러 악재가 6월중 해소 혹은 해소 시그널을 잇따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부채한도 협상 타결로 미국 CDS 는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일부 은행 CDS 하락폭은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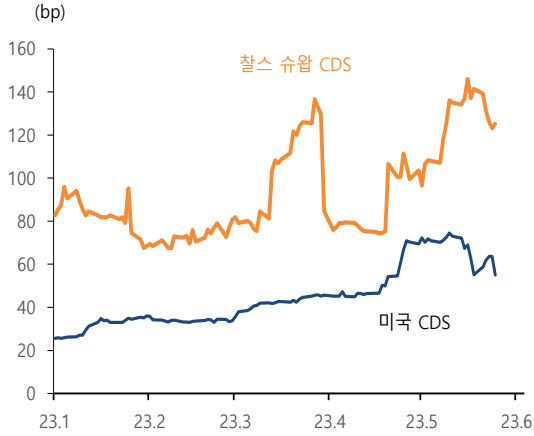


그림2. MMF 로의 자금이동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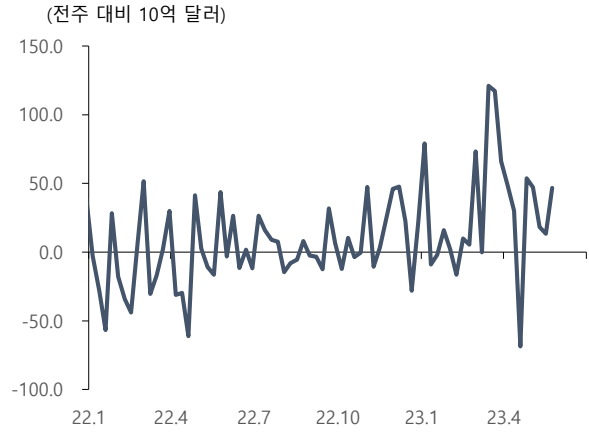


그림3. 미 은행권의 연준 차입도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일부 은행의 유동성 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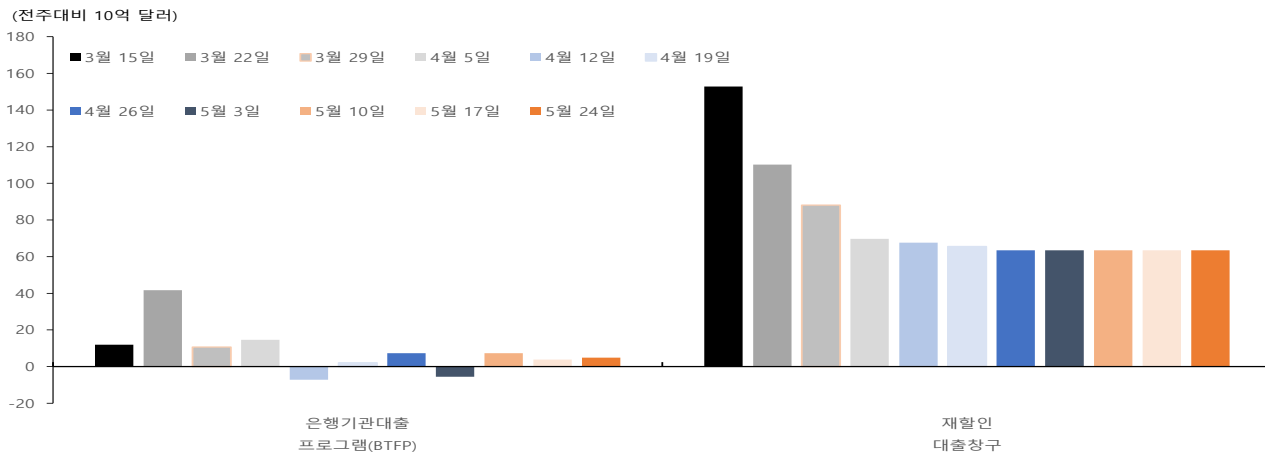


그림4. 중국 경기의 더딘 정상화로 각종 원자재 가격 하락세도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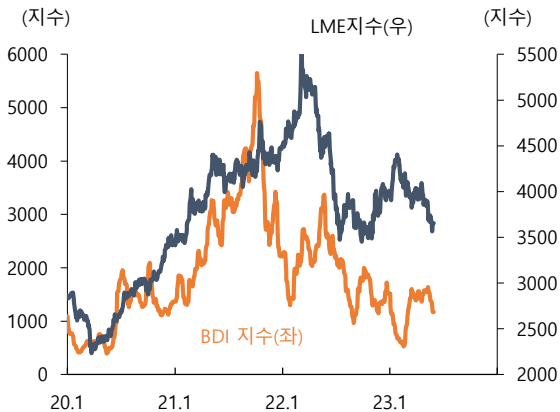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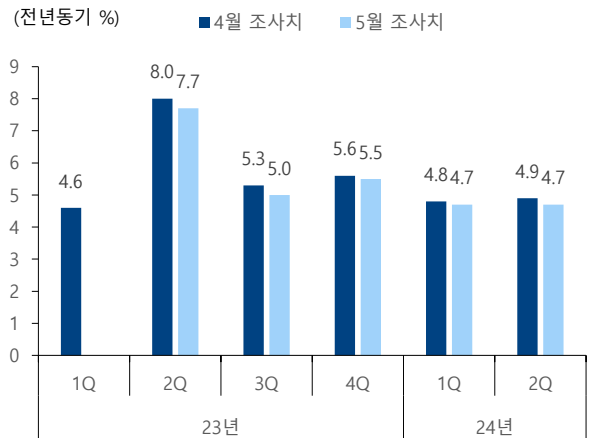


그림5. 블룸버그 중국 GDP 성장률 서베이: 2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가 4월 8.0%에서 5월 7.7%로 하향 조정됨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